

## 2차 제주형지원금 ‘속얇이’

가구당 지급액 변수·예산 확보·지급시기 연기 부담  
 1차 보완사례 많아... 도민 전체 지원시 700억 소요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하 지원금) 지급 대상과 놓은 '선별적이나 보편적이나'에 따른 도민사회 의견이 분분하다. 후자인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1인당 10만원씩으로 1차 지원을 받은 대상 가구들은 되레 10만원씩 덜 받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형 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지난 4월 14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모든 가구다.

지원 한도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50만원(소득 기준 47만9000원)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가입자 16만546원, 지역가입자 16만865원, 혼합가입자 16만2883원 등이다. 가구당 지원금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50만원 등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월20일부터 5월22일까지 1차 신청 접수한 12만9811가구 가운데 기준을 충족한 12만3283가구(제주시 8만6184가구, 서귀포시 3만7099가구)에 지원금 401억원을 지급 결정했다.

그러나 지급 대상과 두고 이의신청이 6000건을 넘었고, 보완심사 중인 사례도 5419가구에 이른다. 월 수익과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정하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휴직이나 퇴직을 하거나, 특히 맞벌이가구나 1인 가구, 자영업자의 경우는 상당 부분 배제되면서 이에 따른 불합리한 문제 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회나 초당적인 차원에서 선별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을 통한 도민 전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의회는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에서 정부 지원금 1841억원(도비 266억원 매칭)과 2차분 제주형 지원금 468억원의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보편적 지급방식 검토를 주문했다.

하지만 도는 1차 지원 대상가구에 대한 지원 약속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악화의 이유로 향후 추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며 속얇이를 하고 있다. 도민 전체 지급 시에는 재원 690억~700억원이 소요되면서 최소 200억원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1차분에서 남은 것으로 예상되는 130억원 가운데 55억원은 법정 필수 기금인 재해구호기금으로 돌려놔야 할 형편이다. 여기에 1차 대상가구에 대한 지원액 감소 및 당초 6월에서 7월로 연기되는 지원 시기 조정에 따른 민원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오는 7월 예정인 제2차 추경예산에 따른 계수조정에서 행정당국의 선택이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백금탁기자



해무에 살포시 드러난 산방산 지난 5일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정물오름에서 바라본 산방산이 해무로 정상부분 살포시 드러나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강희만기자

하수도 원가 절감방안 촉각도, 중장기 계획 용역 착수

전국 평균보다 높은 제주지역 하수도 처리(생산)원가 개선이 시급한 가운데 효율적인 원가 감축 및 절감방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제주도 하수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2020~2024) 수립 용역'이 지난 5일 착수되면서 늦어도 오는 9월쯤 용역 결과물이 나올 예정이다.

제주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2019년도 결산 기준 자산 1조7546억원, 부채 5002억원이며, 설립 이후 매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다.

이에따라 도는 이번 용역에서 재정분석 및 타 지자체와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해 향후 5개년의 경영관리 계획을 수립해 경영 합리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용역진은 제주와 유사한 인구·면적의 지자체 5곳 이상을 선정해 생산원가, 톤당 원가, 톤당 요금, 요금현실화율 등 결산지표를 비교분석하고, 제주가 타 지자체보다 생산원가가 높은 원인을 도출하게 된다. 또 생산원가 감축 및 절감 방안과 경영합리화 방안을 비롯해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제고와 경영관리 효율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한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매각 속도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매각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경기평택항만공사와 센터 매각 방법 등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이달 중 공개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감정평가 결과 매각 예정가격은 감정수수료를 포함해 17억4700여만원으로 책정됐다. 앞서 도의 탁상감정가격은 13억원이었다.

도는 올해 안 매각을 통한 소유권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부지 사용 임차료 유지비용 약 3억원을 도가 부담하고 있어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 할 경우 재정손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도는 물류센터가 국비가 투입된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1년

도, 이달 중 공개입찰  
 감정평가액 17억여 원  
 매각 안되면 재정손실

미경과로 보조금 일부 환수 대상이 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정확한 환수액과 환수시점 등을 논의 중이다. 환수액은 약 3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매각 절차는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난 3월 열린 제주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서 본격화됐다.

물류센터는 지난 2013년 제주농수축산물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수도

권 거점 물류센터 용도로 48억3000만원(국비보조 50%)을 투입해 건립됐지만 수년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제주~평택항로를 오가던 카페리 운항이 중단되고 위탁업체가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면서 장기간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왔다.

도는 지난해 운영사업자 선정에 공을 들였지만 결국 새 운영자를 찾지 못하면서 부지 사용 임차료 유지비용 부담에 따른 도 재정 손실 최소화를 위해 센터 매각을 선택했다.

물류센터는 평택항 포승물류단지 내 1만2193㎡ 부지에 지상 2층·지하 1층(건물 3104.9㎡)의 규모로 건립됐다. 물류센터에는 냉동실과 냉장실, 사무실, 상온집하장 등이 설치됐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7대 전략 윤곽

생태모델도시 구현 등 제시

제주특별자치도가 '2030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를 추진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우수한 자연환경을 최상위 가치로 설정해 제주를 글로벌 동북아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 5일 제주연구원에서 '2030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 수립 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7대 전략과 주요과제를 발표했다.

7대 전략은 생태모델도시 구현, 스마트 친환경도시 실현, 청정 물관리

도시 구축, 탄소중립도시 추진, 자원순환도시 실현, 미래형 녹색경제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환경문화 거버넌스 구축이다.

전략별 추진과제는 도시숲 확충 및 원시 생태림 조성 모델사업, 시민과학 기반의 생물다양성 발굴, 환경자원총량제 도입, 생태계 기반 해양건강성 관리, 해양·수산 자원관리 등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사업에 대한 도민 홍보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추진에 따른 도내 각 산

업계에 맞는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한편 환경수도 조성사업은 2012년 세계자연보전연맹 회원총회에서 세계환경허브 조성 및 평가인정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제주도와 협력하기로 하면서 가시화 됐다. 하지만 지난해 세계자연보전연맹이 비영리 환경단체로서 공적인 인증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주도에 전달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도는 정부의 동북아 환경수도 건설 추진에 따라 환경수도 조성사업을 '동북아 환경수도' 사업으로 수정하고, 세계환경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 2020년 건설현장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안내

클린사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대상, 연간 3회까지 지원

안전은 권리입니다

### 지원대상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사업주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과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2개 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하도급)
  - ※ 단, 원도급의 시공능력 및 공사금액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제한될 수 있음

### 보조대상설비

- 시스템비계 : 수직·수평·가새재, 안전난간, 가설계단, 작업발판 및 부속품 등 일체
- 안전방망 : 낙하물방지망(플라이넷), 추락방호망, 수직보호망
  - \* 낙하물방지망(플라이넷), 수직보호망은 시스템비계 설치현장에 한하며, 추락방호망은 개별로 지원가능

### 보조대상설비 예시



### 지원조건

- 시스템비계 설치 면적구분별 정액으로 지원(안전보건공단 조건표 기준)
- 안전방망 구입·설치비용은 공사금액 3억미만 65%, 3억~20억미만 60%, 20~50억미만 50%까지 지원
- 동일사업주 지원횟수 제한(연 3회/회당 최대 2,000만원)
- \* 지원제외대상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순위 700위 이내 건설사업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산재 보험료 체납 사업장

### 신청방법 및 문의

- 제주지역본부 우편 및 직접방문제출 또는 온라인신청
  - ※ 온라인제출(clean.kosha.or.kr)
- 문의 :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 064-797-7521